

“관내 섬 교량·도로 연결…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축”

민선 6기 2년 설계
고길호 신안군수



고길호 신안군수는 취임 이후 ‘신안의 꿈, 새로운 시작!’을 민선 6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총체적으로 열악한 정주환경과 가난이라는 섬의 애환을 반드시 우리 시대에 극복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세우는데 군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군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주관 생활불편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2015 자치 단체부문 창조경영인 대상 등을 수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민선 6기 4대 핵심전략으로 우선 지역 성장동력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관내 섬들이 하나 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추진 중이다.

군 해양 실�크로드는 압해읍~압태면~비금면~도초면~하의면~신의면~장산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2호선의 동·서 축(軸)과 지도읍~증도면~자

문화관광자원 확충 소득 창출
경쟁력 있는 수산물 집중 육성
흑산도 소형공항·카페리 운영

은면~팔금면~안좌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805호선의 남·북 축이 교차되는 십자형 도로망이다. 국가 재정여건상 교량 건설이 어려운 압태~비금 구간은 국도 8호선 연장구간(안좌 한운~도초 도락)으로 대체 건설하고, 증도~자은 구간은 37억 원을 투입, ‘로드 페리’를 도입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중인 새천년대교와 임자대교, 안좌~자라 연도교, 하의~신의 연도교는 조기 완공토록 하고, 농·어촌도로 이상의 기간도로는 확·포장을 조속히 마무리해 물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새천년대교 완공 시기(2017년 말)에 대비해 중부권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부권에 국민체육센터와 국립 도서개발연구소, 도서 식생공원, 전통시장 등을 개설하고,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행정

정타운을 건립해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압해읍 송공항과 지도읍 송도항에는 수산 물류 허브·해양음식 타운 등을 조성해 권역별 수산물 선도를 선도하고, 흑산권에는 소형 공항과 전천후 카페리 선박을 운영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고 군수는 “비교우위의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군은 그동안 군 행정의 뿌리깊은 폐단이었던 즉흥적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대외 경쟁력을 갖춘 선도품목 개발과 권역별 특성에 맞는 농·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고소득이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업도 전복, 낙지, 해조류 등 경쟁력 있는 수산물의 기술보급을 비롯해 가공시설 직접단지, 산지 거점시설 유통시설 확충 등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수산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문화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자원의 확충

을 위해 ‘예술의 섬’ 조성을 비롯해 ‘김환기 미술관’ 건립, 하의 해양 테마파크, ‘세계 생태수도 섬’ 등을 조성하고,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 유치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를 위해 북경시 대흥구와 교류협력 및 관광우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대흥구에 신안군 홍보관과 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했다. 군은 김포공항과 용산역 등 국내 주요 교통망에 홍보관을 개설했고, 국내외 관광객 체류를 위해 압해도 ‘다움 리조트’, 증도 ‘트레저 아일랜드’ 등 민자 유치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행복한 복지와 군민의 통합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로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섬 인구의 고령화 및 독거가구의 증가에 따라 문화·보건·생활공간을 집약적으로 배치하는 ‘맞춤형 종합 복지센터’ 10개소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4개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고길호 군수는 “신안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이 있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섬들의 고향’ 신안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농업인 100명 대상 농기계 기술교육

신안군이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하의면과 장산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과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 예방 및 계절별 농기계 보관 방법 등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임대 농가와 여성 농업인, 귀농인들에게 임대 농작업기 사용요령과 농기계의 안전 사용방법, 잦은 고장부분의 현장 응급처리요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 농기계의 운전조작 중심으

로 진행됐다.

군은 임대 농기계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교육으로 임대장비 유지관리 비용절감과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평소에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가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사전지식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임대 농기계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면세유 부정사용 단속 서해어업단 17건 적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정동기)은 7월 한 달간 내수면 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등 유통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경기, 충남소재 면세유 관리기관(총합) 2개소와 석유류 판매업체 17개소, 어업인 14명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된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 석유 판매업체와 어업인 14명(10만 ℓ/휘발유), 면세유류 관리기관(5만6000 ℓ/휘발유)은 각각 관할 세무서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석유판매업자와 어업인 면세유 양도·양수,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부실 혐의 등 조세특례 제한법 위반혐의의 45건을 적발하고 면세유류 구매카드 45개를 말소시켰다.

정동기 단장은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무안군 ‘스테비아 농법’ 이용 양파 경쟁력 강화

페놀·항산화물질 함유 탁월

무안군이 고품질 기능성 양파생산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00여ha에서 ‘스테비아 농법’을 이용해 양파를 생산하고 있다. 스테비아 양파는 연작 장애를 해소하고 저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기능성 양파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추고 있어 양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산업화연구센터에 의뢰해 풍탄면 무안 스테비아 영농조합법인(대표 김덕형)에서 ‘스테비아 농법’으로 생산한 양파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 농법으로 재배한 양파에 비해 ‘페놀’함량이 110~195%, ‘퀘세틴’ 함량이 124~216%, 항산화 활성물질이 111~161%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무안 우체국과 택배계약을 체결해 양질의 양파를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우수



한 품질의 스테비아 양파가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해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무안경찰 치안성과 보고회

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최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각 과장과 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기능별 성과과제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하반기 치안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기능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덕 서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이 곧 우리의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경찰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약=임동현기자 idh@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